

장애인

05. 동구밭 (홍익대학교)

도시농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적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적 진출

OPPORTUNITY	<p>사회적 진출의 니즈를 가진 지적장애인</p> <p>도시농업이 우리나라에 정착한지 역사는 길지 못하지만 이미 도심 속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수단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공적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시농업이 가진 다양한 이점 중 동구밭은 도시농업에 기존의 전원농 형태와 달리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계층 연령대와 소통이 용이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보다 사회 진출에 대한 니즈는 강력하나 사회에 설 자리가 부족한 지적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기에 적합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응용력이 여타 장애군에 비해 부족하여 실제 사회에 진출해 계신 분들도 단순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부문은 대부분 기계 설비화되어 지적장애인이 사회에 설 자리는 나날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구밭은 지적장애인분들이 처해진 어려움을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p>
ACTION	<p>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p> <p>현재 국내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모델을 가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농사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다. 실패한 선례를 통하여 동구밭은 먼저 지적장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장애인 인권 단체 '장애여성공감'의 도움으로 지적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실제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업농 형태로 운영 중인 파주 '교남어유지동산'을 방문하여 지적장애에 대한 직업 상 이해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자료조사를 통해 알 수 없는 부족한 실무적 부분을 배웠다. 그 결과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용력이 부족하나, 직업상 사회적 적응능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시농업을 통해 사회적 진출 및 직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동구밭은 위 결과를 토대로 국내 최대 텃밭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사회적 기업 '에코 11'과 파트너십을 맺어 지적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응용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농사의 과정을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위 일련의 진행과정을 토대로 '강동 장애 부모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현재 총 5명의 지적장애인분을 대상으로 선정, 2014년 2월 동구밭 도시농부 캠프를 시작으로 강동구 상일동 공동체텃밭에서 농사를 진행 중이다.</p>
PROGRESS	<p>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희망을 직업으로</p> <p>홍익대학교 인액터스 동구밭팀은 동구밭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텃밭 운용 경험이 있는 지적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농부 및 텃밭강사로 독립시키는 구조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수확물을 활용하여 가공아이템 생산 판매 및 텃밭을 활용한 환경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중에 있다. 또한 혜화동 마르쉐를 벤치마킹한 도시농부장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유기농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더불어 협소한 도시농부들의 판로를 확장할 계획이다.</p>
BUSINESS MODEL	

장애인

06. 고요한 택시 (동국대학교)

청각장애인에게 '택시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취업군을 열어준다.

OPPORTUNITY	<p>의사소통이 불필요한 일에 한정된 청각장애인의 직업군</p> <p>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직종, 그 중에서도 특히 3D업종/단순노동에 종사하며 충분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73%의 청각장애인들은 월 1백만원 이하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의사소통만을 요구하며, 육체노동은 적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p>
ACTION	<p>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문제 해결</p> <p>승객과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고요한'을 개발했다. 택시 내부에는 승객용, 기사용 태블릿 PC가 각각 한 대씩 설치되어 승객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블루투스로 연결된 기사용 태블릿 PC에 관련 정보가 전송된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며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후, 청각장애인을 직접 채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등을 교육시키고, 택시 회사 취업을 연계해준다.</p>
PROGRESS	<p>다방면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 확장</p> <p>택시 회사 '덕수 콜택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각장애인을 택시기사로 고용한다. 또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등의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장애인 택시 기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한국농아인 협회,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청각장애인 교육, 수화 의사소통, 보조기기 설치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다. 택시 회사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8%의 수수료를 받으며 청각장애인들을 택시기사로 고용하도록 만든다. 이후 B2G, 공항택시로의 서비스 확장을 통해 판로를 넓히고자 한다.</p>
BUSINESS MODEL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business model flo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시회사 (Taxi Company) provides '고요한' 어플 제공 (Goyohan App Provision) to GOYOHAN TAXI. 택시회사 also provides 파트너십 구축/청각장애인 고용 (Partnership Building/Deaf Hiring) to GOYOHAN TAXI. GOYOHAN TAXI provides 택시기사 활동 (Taxi Driver Activity) to 청각장애인 (Hearing Impaired Person). GOYOHAN TAXI provides 일자리 제공 (Job Provision) to 청각장애인.

소방관

09. REO (건국대학교)

폐방화복을 통해 소방관과 시민을 연결합니다.

OPPORTUNITY	<p>열악한 근무환경 속 소방관들</p> <p>소방관들은 낮은 인식과 지원금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근무환경 및 처우 역시 매우 열악했다. 소방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는 소방관들에게 집중하며 프로젝트 REO는 시작됐다.</p>
ACTION	<p>폐방화복 업사이클링으로 소중한 제품을</p> <p>프로젝트 REO는 내구연한 3년이 지나면 버려지는 폐방화복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토트백과 팔찌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판매된 제품들을 통해 나온 수익은 다음 상품 개발에 투자되거나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디자이너들과 협력하고, 소방관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한세실업과 계약하여 FRJ Jeans에 지속적으로 REO팀의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알리기 위해 토크 콘서트와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p>
PROGRESS	<p>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소방관들에게 힘이 됩니다.</p> <p>소방 복지 사업단에게 폐방화복을 지원 받으며 꾸준한 상품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REO팀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REO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방화복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여러 어려움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소방관을 위한 제도와 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폐방화복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켰다.</p>
BUSINESS MODEL	